

#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역사적 고찰: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

신 욱 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앞으로 백년 동안의 세상이 알고 싶으면  
지나온 백년 동안의 역사를 올바르게 보도록 하라 -공자-

## I. 서 론

세기말에 이르러 지나간 백년에 대한 회고와 새로운 백년에 대한 전망이 행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sup>1)</sup> 이는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사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며,<sup>2)</sup> 지난 20세기를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라고 부르는 미국 학계 내에서는 더욱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20세기의 경험이나 21세기의 예측의 견지에서 볼 때 세계정치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도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는 중요한 현실적 의제가 아닐 수 없다.

---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하지만 불기나 단기로 본다면 서기상의 새로운 백년이나 천년의 시작이란 단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 2) 대표적인 저술로 P.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andom House, 1993을 볼 것.
- 3) R. Hutchings, ed., *At the End of the American Century*,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8과 *Diplomatic History*, 23, 2, 1999의 특집 “The American Century: A Roundtable”을 참조할 것.

21세기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 대상은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 미국 외교의 유럽 우선주의와 아시아 우선주의의 양상은 각기 다른 국내정치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거나,<sup>4)</sup> 시기와 의제에 따라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가 아시아·태평양의 시대로 정의되고 동아시아가 갖는 경제적, 안보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미국 대외정책의 아시아에 대한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정책은 향후 미국가전략과 세계정치 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현재의 정책 분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역사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20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정책을 전망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논문의 이론적인 틀과 분석의 주요 대상과 방법이 소개될 것이다. 두 번째의 부분은 20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식민주의와 냉전의 시기로 나누어서 각각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탈냉전기의 미 동아시아 정책의 수행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한 21세기에 대한 시론적인 견해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 II. 이론적 논의

하나의 행위자로서 미국의 대외정책이라는 미시적 변수와 특정한 시기의 국제적 환경이라는 거시적 변수를 연결시키는 이론적 틀로서 이 논문은 최근의 국제정치이론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체-구조(agent-structure)의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든스(Giddens)의 구조화이론을 원용하고 있는 이 접근법은 국제체제를 형성하는 주체와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구성적인 속성(mutually

4) 한 예로 냉전 초기의 동부 출신의 유럽 위주 국제주의자와 중서부 출신인 아시아 위주 국내주의자의 존재를 들 수 있다. J. Snyder, *Myth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ch. 7을 볼 것.

constitutive nature)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를 통해 그들이 존재하는 체제를 생산하고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행위자이며, 국제체제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가 갖는 규제적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는 다른 체제이론과는 달리 이 이론은 구조적 속성을 만들어 내는 행위자의 주체성(agency)의 부분에 균등한 이론적 비중을 두고 있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고 지칭되는 이 시각은 구체적인 연구전략으로서 인과적인 힘이나 관습, 그리고 국가들의 이익 정의 방식을 이론화하고 설명하는 “추상적인” 분석과, 특정한 사건에 이르게 되는 인과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들의 선택과 상호작용의 진행과정을 추적하는 “구체적인” 분석을 결합하는 구조적-역사적 분석방법(structural-historical analysis)을 제시한다.<sup>5)</sup>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이 틀을 적용시켜 앞에서 언급된 상호적인 연계의 존재를 상정하면서 의도적이고 해석적인 행위자의 인식의 측면을 염두에 두으로써 개체주의와 구조주의가 갖는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대외정책 수행을 주체와 구조가 일정한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인과적으로 통제하는 선택과 규제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대한 경험적 고찰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 주체(state agent)는 국내적인 구조와 국제적인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양면적인 행위자(janus-faced actor)이며, 양쪽의 정치적, 제도적 환경은 구조적 제약을 부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생성과 변화의 측면은 시간 차원의 고려에 의해 이전 구조의 영향과 현 행위의 구조적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다루면서 본 연구는 20세기를 식민주의 시기, 냉전

5) A.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2, 1987을 참조할 것. 구성주의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2, 2, 1998을 볼 것.

6) 예를 들어 한 시기를 t1이라고 한다면 행위자는 t1의 한 시점의 구조적 조건하에서 일정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다음 시기, 즉 t2의 구조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W. Carlsnaes, "The Agency-Structure Problem in Foreign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6, 3, 1992를 볼 것.

시기, 그리고 탈냉전의 시기로 삼분하고 각 시기의 초반부를 분석하고 있는 데 이는 그 기간에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가 갖는 영향력, 즉 주체성(agency)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구조적인 특성상 식민주의는 다극적인 체제였고, 냉전은 기본적으로 양극 체제였으며 탈냉전기는 상대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세 시기에서 미국의 정책이 갖는 변수로서의 비중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식민주의 체제는 이미 19세기 중반 이래의 형성기를 거쳐 이미 일정한 구조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후발국가로서 미국이 갖는 행동의 범위는 그 제약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이 갖는 중요성은 각 시기를 거치며 점차 증대되어왔다는 점에서 볼 때 20세기의 국제체제의 전개와 21세기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적 분석이 갖는 의미 또한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구성주의적 접근이 갖는 특징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갖는 합리주의 또는 물질주의적인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의 인식이나 의도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역사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경시해 왔던 관념(idea)의 역할을 증시할 것이다.<sup>7)</sup> 골드스타인(Goldstein)과 코헨(Keohane)은 정책적 관념의 유형을 세계관(world view), 원칙적 신념(principled belief), 인과적 신념(causal belief)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이정표(road map)의 제공, 조율을 담당하는 초점(focal point)의 기능, 또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과정을 통해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sup>8)</sup>

7) 권용립 교수는 미국외교의 주기적 변화, 시대별 특징, 일관성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이익과 제도의 요소와 함께 이념의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권용립, 『미국 대외정책사』, 민음사, 1997을 참조할 것.

8) J. Goldstein and R. Keohane, eds.,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ch. 1을 볼 것. 신제도주의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증시하는 정책적 관념의 영역은 구성주의자들이 다루는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규범과 규칙의 측면보다는 좀 더 미시적이고 기능적인 범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분모의 존재는 기존의 주류이론과 구성주의를 매개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이 갖는 효용은 미국 외교정책의 해석에 있어서 국가안보의 목표를 강조하는 전통주의와 경제적 이익에 치우치는 수정주의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적인 현실을 규명하고, 대내적인 맥락에 중심을 두는 국내정치 우선학과 (Innerpolitik school)와 대외적인 맥락에 치중하는 대외정책 우선학과(Aussenpolitik school)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고 하겠다.<sup>9)</sup> 예를 들자면 하나의 정책적 관념으로서 미국의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은 국제정치적 분규를 피하면서 미국의 상업적이고 문화적인 팽창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고안되었고, 이는 또한 지역주의와 비집중화된 권력(localism and decentralized power)이라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전통이 외교정책적으로 외연화된 모습이었다고 지적된다.<sup>10)</sup> 관념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보여주는 연속성의 기반과 시기적인 변화의 양상을 함께 포괄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적 팽창주의라는 상호 모순적인 측면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리에(Iriye)가 사용하는 문화(culture)의 요인이나, 헌트(Hunt)가 강조하는 이념(ideology)의 역할 등이 대표적인 관념 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sup>11)</sup> 요즈음 새롭게 중시되고 있는 정체성(identity)에 관한 논의도 유사한 이론적 의제를 제공한다.<sup>12)</sup> 물론 이러한 관념에 대한 고려는 이익(interest)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하며, 이리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과의 연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sup>13)</sup> 즉 정책적 관념은 그를

9) 물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로는 이른바 조함주의(corporatism)적 접근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M. Hogan, "Corporatism," in M. Hogan and T. Paterson,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을 볼 것.

10) F. Ninkovitch, "Ideology, the Open Door, and Foreign Policy," *Diplomatic History*, 6, 2, 1982를 참조할 것.

11) A. Iriye, "Culture and International History"; M. Hunt, "Ideology" in Hogan and Paterson, 1991을 볼 것.

12) 대표적인 글로 J. Ruggie, "The Past as Prologue? Interests, Identit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1, spring, 1997을 볼 것.

13) F. Ninkovitch, "Interests and Discourse in Diplomatic History," *Diplomatic History*, 13, 2, 1989; I. Iriye, "Culture and Power: International Relations as Intercultural Relations," *Diplomatic History*, 3, 2, 1979를 참조할 것.

통해서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정의되고, 그러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지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선택되는 변수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입안과 수행에 있어 정치, 경제적 요인과 구별 또는 연관되는 관념의 요인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각 시기에서 그 정책적 표현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려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 동아시아 관계 전반을 다룬다기보다는 그 핵심적인 두 축에 해당하는 미중관계와 미일관계의 내용을 주로 검토하게 된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 유럽 정책과는 달리 20세기에 걸쳐 동아시아에 대한 통합된 지역전략이 존재했다기보다는 대 중국정책과 대 일본정책의 결합의 형태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수행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두 쌍무적 관계에 대한 역사적, 비교적 분석을 통해 시기적인 연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식민주의, 냉전, 그리고 탈냉전의 세 시기를 통해 관찰되는 반복적인 유형(recurrent pattern)에 대한 고려를 통해 21세기 미 동아시아 정책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4)</sup> 이와 같은 고찰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각 시기에 걸쳐 미국의 대 중국정책과 대 일본정책은 어떠한 형태로 연계, 또는 상충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쳤는가? 미정책의 주 관심사와 제휴의 대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는가? 세 시기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발견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위에서 제시된 관념적인 요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4)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학에서 사용되는 유비론(analogy)의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정책결정에 있어 유비론적 분석의 예로는 Y. F. Khong, *Analogies at War: Korea, Munich, Dien Bien Phu, and the Vietnam Decisions of 196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를 참조할 것. 하지만 모겐소(Morgenthau)는 유비론의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H. Morgenthau, "Remarks on the Validity of Historical Analogies," *Social Research*, 39, 2, 1972를 볼 것.

### Ⅲ. 식민주의와 냉전

이 논문에서 식민주의와 냉전의 시기를 1차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헌트와 이리에의 작업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미국 대외관계사학회(Society for Historian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의 중심 인물인 두 학자는 헌트는 미중관계, 그리고 이리에는 미일관계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또한 외교사학자이면서도 정치학적인 접근방법을 함께 원용하고 있고,<sup>15)</sup> 헌트는 이념의 요소, 그리고 이리에는 문화의 요소라는 관념적인 변수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 식민주의 국제체제의 본격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략 1890년대를 그 기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카리아(Zakaria)는 이 시기에 미국의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행정력을 완비하게 되면서 비로소 적극적인 세계적 역할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진 곳의 하나로 동아시아를 지목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변화의 실제적인 사례가 바로 1898년의 미서전쟁과 1899년의 문호개방정책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즉 미국의 세기는 필리핀 병합을 통해 심정적인 제국주의(sentimental imperialism)가 구체화되고,<sup>18)</sup> 헤이(Hay)가 그 당시 “향후 5세기 동안 세계정치의 핵심적 요인이 될 것”<sup>19)</sup>이라고 예견했던 중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정책적 관념을 꼽으라면 아마 문호개방의 이념

15) 역사학적 방법론과 정치학적 방법론간의 협력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International Security*, 22, 1, 1997의 특집 “Symposium: History and Theory”를 참조할 것.

16) F. Zakaria, *From Wealth to Power: The Unusual Origins of America's World Ro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ch. 5를 참조할 것.

17) 1898년은 “미국의 세기의 탄생을 예견하는 승리, 발명, 내부적 갈등, 그리고 산업의 팽창으로 특징지어지는 요란한(tumultuous) 해”라고 묘사되고 있다. D. Traxel, *1898*, Alfred A. Knopf, 1998.

18) J. Thomson, Jr., et. als, *Sentimental Imperialists: The American Experience in East Asia*, Harper Torchbooks, 1981, ch. 8을 볼 것.

19) Zakaria, 1998, p. 162.

을 들어야 할 것이다.<sup>20)</sup> 냉전기의 봉쇄(containment)의 개념이나 탈냉전기의 “시장과 민주주의(market and democracy)”의 원칙은 그 표현은 달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호개방의 연장전상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호개방이 어느 정도 미국의 이념적 전통과 국내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인가는 또 다른 논의의 문제일 것이나, 1900년대 초반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이 관념은 골드스타인이나 코헨의 분류에 따르자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회피하면서 자유주의적 팽창을 모색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적 입장을 이념적, 국내 정치적으로 조율하는 초점(focal point)의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1)</sup>

미국은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다른 열강들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중국의 근대화 및 영토적 주권의 보존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열강들간의 세력균형의 대안을 추구하고 있었던 장지동과 같은 중국의 관료들은 보다 호의적이라고 여겼던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영국이나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을 교화의 대상이나 상업적 이익의 근거지로 상정하고 있었던 미국의 태도는 결국 양국간의 이해의 불일치를 확인시켜주게 되었다. 만주에서 일본 세력의 확장을 미국의 도움으로 억제하려고 했던 중국의 노력의 실패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불신은 이후 중국에서 개혁적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변화의 필요성과 수입된 모델의 가치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으

20) 개디스(Gaddis)는 문호개방이 미국 외교사의 주된 해석적 패러다임(the dominant interpretive paradigm)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J. L. Gaddis, “New Conceptu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Diplomatic History*, 14, 3, 1990, p. 407.

21) 1900년대 초 문호개방의 관념적, 정책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위해서는 I. Bickerton, “John Hay’s Open Door Policy: A Re-examination,”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23, 1, 1977과 C. Vevier, “The Open Door: An Idea in Action, 1906-1913,” *Pacific Historical Review*, 24, 1955를 볼 것.

22) M. Hunt, *The Making of a Special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1914*,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ch. 6을 볼 것. 중국에 대해 사실상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루즈벨트(Roosevelt)에 비해 상업적 잠재력을 인정했던 태프트(Taft)와 계몽적 의지를 표현했던 윌슨(Wilson)의 정책은 나름대로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나 근대화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다. 미국은 자신의 피후견국인 중국이 수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라고 여긴 반면, 중국은 미국의 양면적 속성을 공격하며 점차 적대적인 태도를 표시하게 되었다.<sup>23)</sup>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 것은 미국의 대일정책의 문제였다. 중국의 영토적 보전과 일본의 대륙정책은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었으며, 중국은 1900년대 후반에 이르자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이 이미 애초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19세기말의 동아시아에서는 유럽 열강들의 존재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본은 이미 식민주의 체제의 게임의 규칙에 익숙해져 있었다. 중국과는 달리 국가 내부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일본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다. 1900년대 초반 일본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미국은 러일전쟁 이후 점차 구체적인 개입을 하게 되었다.<sup>24)</sup>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중국이 기대했던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라기보다는 잠재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현상유지를 모색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아래의 1908년의 루트-다카히라 협정 내용은 이와 같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통상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발전에 힘쓸 것.
2.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 현상을 유지하고, 청에서의 통상과 산업에 대한 평등한 기회의 원칙을 수호할 것.
3. 상기 지역에서 서로간의 영토적 소유물들을 존중할 것.
4. 문호개방원칙은 물론 청의 독립과 보전을 지지함으로써 청국 내에서 모든 열강들의 공통적인 이익을 보호할 것.
5. 현상유지와 평등한 기회의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양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양국이 같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취할 것.<sup>25)</sup>

23) Hunt, 1983, ch. 8을 참조할 것.

24) A. Iriye, *Across the Pacific: An Inner History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7, ch. 4를 볼 것.

25) 김영흠, 『미국의 아시아 외교 100년사』, 신구문화사, 1988, pp. 38-39.

청과 일본에 대한 루즈벨트의 서로 다른 자세는 그의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헌트에 의하면 다윈주의자(Darwinian)인 루즈벨트는 세계를 국가간의 경쟁과 더불어 인종간의 경쟁의 장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문명화된 인종과 야만적인 인종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으며 진보란 오로지 문명이 야만을 제압함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sup>26)</sup> 하지만 동양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은 이러한 루즈벨트의 편견에서 벗어나 있었다.<sup>27)</sup> 문명화되었으나 인종적으로는 이질적인 일본과의 협력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는 있었지만 미국은 혼란이 계속되는 중국보다는 문명화된 일본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sup>28)</sup>

이 시기 미국의 대 동아시아 관계의 관념적인 측면에 있어서 헌트와 이리에가 모두 강조하는 것은 미국 이민정책의 사례이다.<sup>29)</sup> 문호개방이 상호적이 아닌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예는 쌍무적인 국제관계에 있어 정책결정자가 아닌 각 나라의 사회세력이 갖는 역할과 물질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갖는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사례가 저항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연계되어 감정적인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관념적인 갈등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양면 정책을 수행하였다. 1차 대전 중의 일본의 외교 목표는 제 민족 사이에서 인종적 평등을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실리를 모색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이시이-렌싱 협정과 베르사이유 조약을 통해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sup>30)</sup>

26) 마찬가지로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요인을 강조하면서 콜린(Collin)은 패권(hegemony)보다는 공생(symbiosis)의 맥락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전개를 설명하려 한다. R. Collin, "Symbiosis versus Hegemony: New Directions in the Foreign Relations Historiography of Theodore Roosevelt and William Howard Taft," *Diplomatic History*, 19, 3, 1995를 볼 것.

27) M. Hunt, *Ideology and U.S. Foreign Policy*, Yale University Press, 1987, ch. 5를 참조할 것.

28) F. Ninkovicth, "Theodore Roosevelt: Civilization as Ideology," *Diplomatic History*, 10, summer, 1986을 볼 것.

29) Hunt, 1983, ch. 7과 Iriye, 1967, ch. 5를 참조할 것.

30) 김영흠, 1988, pp. 56-69.

식민주의 시기의 갈등이 문명적 우월감이나 계몽의식과 같은 관념 변수와 연계되어 있었다면 냉전의 시기는 이념적인 양분법이 부각되었던 또 다른 관념정치(idealpolitik)의 장이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냉전을 이해하려는 접근은 정치적인 설명과 경제적인 설명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냉전을 서로가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강요하려는 “사상과 문화의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sup>31)</sup> 즉 케난(Kennan)이 자신의 논문에서 미국과 소련간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간주했던 것도 전략적인 대립이나 경제적인 갈등의 요소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관념적 토대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32)</sup>

2차 대전 이후 알타(Yalta)체제가 붕괴되고 리가(Riga)적인 방식이 채택되는 것도 공통된 게임 규칙의 적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이념적인 고려가 전략적 이익의 내용, 공유 대상, 그리고 추구 수단을 재정의하게 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33)</sup> 유럽에서의 알타회담의 가장 민감한 의제가 폴란

31) 나종일, 「냉전의 문화적 차원」,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2: 정치』,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를 볼 것. NSC-68도 냉전을 자유의 관념(the idea of freedom)과 노예의 관념(the idea of slavery)과의 대결로 묘사하고 있다. E. May, ed., *American Cold War Strategy: Interpreting NSC 68*, St. Martin's Press, 1993을 참조할 것. 화이트(White)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적 역할에 대한 합의를 단순한 소련과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자신의 힘과 진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공적인 사회로 묘사하는 문화적인 경향과 지적인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D. White, *The American Century: The Rise and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as a World Power*, Yale University Press, 1996, p. 155. 이러한 관점에서 냉전기의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다룬 글로 W. Hixson, *Parting the Curtain: Propaganda, Culture and the Cold War, 1945-1961*, St. Marin's Press, 1997을 볼 것.

32) G.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in J. Hoge, Jr. and F. Zakaria, eds., *The American Encounter*, BasicBooks, 1997을 참조할 것.

33) 알타적 방식은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으로, 리가적 방식은 소련의 위협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봉쇄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김영호, 「동아시아와 케난의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14, 1, 1998, p. 243. 미 냉전전략의 국내적 기반 형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포괄적인 위협인식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스나이더(Snyder)는 서로 다른 전략적 신념을 갖고 있었던 유럽 중심의 국제주의자와 아시아 중심의 국내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게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의 과장전술과 세계적 팽창주의 전략을 채택하는 정책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Snyder, 1991, ch. 7을 볼 것.

드 문제였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알타적 방식의 성패가 걸려있는 문제는 중국에서의 미소간의 협력 가능성이었다. 이리에는 관념적인 내용을 결핍한 현실정치(realpolitik)적 협상으로서의 알타체제가 중국의 내부적 변화에 따라 자유주의 대 반식민주의의 양극적 구도가 자리잡게 되면서 1947년부터 사실상 붕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다.<sup>34)</sup>

하지만 또 한편으로 미중관계는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는 관계였다. 케난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회복하고 소련을 견제하려 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췌기전략(wedge strategy)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즉 애치슨(Acheson)이 모택동을 중국의 티토(Tito)로 생각했던 것처럼 케난도 중국 공산당이 일본과 국민당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에 의존해 왔지만 소련의 중국에 대한 여러 요구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중소관계는 악화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케난은 이러한 고려에 따라 중국의 유엔가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국내여론 때문에 실현될 수 없었다.<sup>35)</sup>

헌트는 이러한 현실주의적 접근의 실패 이유를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의 한계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부재와 전략적 오식(misperception)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 1935년부터 1951년까지의 중국 공산당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면서 그는 모택동이 반식민주의를 기본적인 노선으로 삼고 있었지만 193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소련보다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했으며 자본주의 이념에 대해서도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1945년 이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직후에도 비관주의를 견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간헐적으로 시도하였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sup>36)</sup>

34) A. Iriye, *The Cold War in East Asia: A Historical Introduction*, Prentice Hall, Inc., 1974, ch. 4를 볼 것. 이와는 상대적으로 갈리치오(Gallicchio)는 주로 일본문제 처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냉전의 기원을 찾아내려 한다. M. Gallicchio, *The Cold War Begins in Asia: American East Asian Policy and the Fall of the Japanese Emp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을 참조할 것.

35) 김영호, 1998, pp. 263-264.

36) M. Hunt, *The Genesis of Chinese Foreign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chs. 5, 6을 볼 것.

하지만 이러한 유동적인 관계는 1949년 중소동맹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대립의 양상으로 고착되었다.<sup>37)</sup>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전략적 오식의 문제는 다양한 분석 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김일성의 남침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련된 소련과 중국의 오식과 함께 미국의 확전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관련된 오식의 사례는 군사적인 능력과 전쟁에의 개입 의도, 위협 인식, 그리고 영향력과 위신의 고려에 대한 일방적인 추론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 준다.<sup>38)</sup> 결국 헛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교전은 상대방의 국내적,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전략적 자세에 대한 상호 이해의 결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이러한 이유로 존스톤(Johnston)은 안보 행위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기존의 현실주의적이고 행태주의적인 분석에 문화적 차원에 대한 고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sup>40)</sup>

이 시기 미중관계의 전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던 것이 바로 미일관계의 전환이다. 2차대전 이후 영미간의 중요한 합의사항 중의 하나는 일본 군국주의 체제의 철저한 해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초기 점령정책은 냉전의 등장에 따라 변모하였고, 케난의 전략에서 나타나듯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이념적, 전략적 동반자의 위치를 부여받게 되었다.<sup>41)</sup> 한국전

- 
- 37) 중국에서의 “기회의 상실(lost chance)”과 “기회의 부재(no chance)”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문헌을 위해서는 N. Tucker, “Continuing Controversies in the Literature of U.S.-China Relations since 1945,” in W. Cohen, ed., *Pacific Passa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 217-218과 *Diplomatic History*, 21, 1, 1997의 Chen Jian, O. Westad, 그리고 J. Garver의 논문을 볼 것.
- 38) 중국의 참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위해서는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를 참조할 것.
- 39) M. Hunt, *Crises in U.S. Foreign Policy: An International History Reader*, Yale University Press, 1996, ch. 4를 볼 것.
- 40) A. Johnston, “Cultural Realism and Strategy in Maoist China,” in P.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을 참조할 것.
- 41)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의 채택과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M. Gallicchio, “Recovery through Dependency: American-Japanese Relations, 1945-1970,” in Cohen, 1996, pp. 248-252를 참조할 것.

부의 냉전적 합의를 공고하게 하면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이전의 소극적 봉쇄의 형태에서 실질적인 대결 구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에 나타난 소련과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평화공세와 중립주의의 등장은 오히려 일본에게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의 공간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고 기시는 이에 상응하여 친미, 반중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지역적 역할의 증대를 꾀하게 된다.<sup>42)</sup>

1898년 이래의 식민주의 시기와 2차대전 후 냉전기의 미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문화와 이념이라는 관념적인 요인들이 당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지역적인 개입을 정당화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양 시기에 형성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관계는 중국에 대한 기대에서 갈등으로,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견제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이라는 유사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시기 후반에 있어 태평양전쟁과 통상마찰이라는 일본과의 대립으로 귀착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적 선택의 신중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 IV. 탈냉전과 21세기의 전망

헌팅턴(Huntington)은 탈냉전기의 국제체제의 특성을 묘사하면서 “일극적 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sup>43)</sup> 이는 앞서 지적

42) 미국과의 안보조약개정과 기시의 동남아 순방의 사례는 이와 같은 일본의 계산된 전략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준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의 정책을 단순하게 미국에 대해 의존적이거나 반응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필요에 따라 일본을 이용하고 일본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위해서는 신옥희, “냉전기 미일동맹의 정치경제, 1954-1960: 일본의 역할,” 한일공동연구 발표 논문, 1999를 볼 것.

43) S.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78, 2, 1999를 볼 것.

되었던 것처럼 다극체제였던 식민주의 시기나 양극체제였던 냉전기에 비해 탈냉전과 21세기 초반의 국제정치에서 단일 행위자로서 미국이 갖는 자율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44)</sup>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세계주의 전략으로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의 논리에 입각한 개입과 확장(engagement and enlargement)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도 유사한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45)</sup>

탈냉전기의 유럽 안보에 대한 논의가 다자적인 접근이 주가 되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동아시아 안보는 아직도 쌍무적인 관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sup>46)</sup> 클린턴 행정부는 미중관계의 재정립이 21세기의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안보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서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천명하였다.<sup>47)</sup> 하지만 이러한 협력 모색의 이면에는 대만문제, 핵 관련기술 문제, 통상문제 등의 현실적인 갈등 요인들이 잠재해 있고, 국내적인 합의 기반도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전략이 중국의 지역적 패권 추구를 자극할 수도 있고, 대만, 일본, 인도와 같은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sup>48)</sup>

현실주의적 분석에 의한 중국과의 잠재적인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sup>49)</sup> 소위 “중국위협론(China threat)”이나 인권문제와 같은 관념적이고 국내적인 차

44) 21세기에 걸쳐 미국의 패권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장래에 대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5) 백악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개입과 확장」, 『국가전략』, 1, 1, 1995와 미국 국방부,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전략」, 『국가전략』, 1, 2, 1995를 참조할 것.

46) 대표적인 글로 A.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 3, 1993/94를 볼 것.

47)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미·중의 ‘전략적 관계’ 현황과 전망」, 1998. 5. 20을 볼 것.

48) T. Carpenter, “Roiling Asia: U.S. Coziness with China Upsets the Neighbors,” *Foreign Affairs*, 77, 6, 1998을 참조할 것.

49) D. Roy,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9, 1, 1994를 볼 것.

원의 논의와 결부되어 더욱 확대되는 측면을 나타낸다. 램프턴(Lampton)은 중국위협론의 근거를 이루는 11가지 인식과 그 경험적인 토대를 분석하면서 대부분이 틀렸거나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50)</sup> 냉전의 종언을 자유주의의 승리로 간주하고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시민사회의 기준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아직도 “중국식”의 경제성장과 근대적 주권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첸지안(Chen Jian)은 미국이 중국이 역사적으로 갖게된 피해의식을 감안하고 중국을 위협의 대상이 아닌 선의의 경쟁(challenge)의 대상으로 보아줄 것을 바라면서, 중국의 근대화에 대한 지원이라는 19세기 말 이래의 양국의 공동 목표의 복원을 강조한다.<sup>51)</sup>

이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가장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미일관계의 측면이다. 냉전 후반기의 경제적 마찰로 인해 소원해져 있던 두 나라는 탈냉전을 맞아 쌍무적인 동맹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sup>52)</sup> 이는 공동안보선언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sup>53)</sup> 물론 이러한 구도에서 일본이 어디까지 정상화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지역, 또는 국제안보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sup>54)</sup> 일부 학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일간의 장기적

50) D. Lampton, “China,” *Foreign Policy*, spring, 1998을 볼 것. 물론 한 나라의 능력 변화의 문제와는 달리 그 능력의 공격적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1) Chen Jian, “The China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Implication for U.S. Foreign Policy,”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8을 참조할 것.

52) 이 문제에 관한 미국과 일본 내의 다양한 시각을 보려면 M.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Japan Security Relation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ch. 2를 참조할 것.

53)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미일안정보장협의위원회,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국가전략』, 4, 1, 1998을 볼 것.

54) 크리스텐센(Christensen)은 중국의 일본에 대한 불신의 존재를 지적하면서 미국은 미일동맹 내에서 일본의 새로운 지역적 역할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 Christensen,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3, 4, 1999를 볼 것.

협력의 장애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sup>55)</sup>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시기가 미일간에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관념적 동맹을 구축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된다.<sup>56)</sup> 다시 말해서 공동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미일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세계적인 공동 안보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미 동아시아 관계의 역사는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삼자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57)</sup> 냉전의 종언 이후 현재까지의 미 동아시아 정책의 전개는 일본과의 지역 협력 모색과 중국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견제라는 추세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21세기의 동아시아도 미일관계가 중심 축이 되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전략적인 구분과 관념적인 구분이 증척되는 식민주의와 냉전 시기의 유형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자유주의 동맹(liberal alliance)이 과연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헌트는 역사적 시각(historical perspectiv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만약 좀 더 조화로운 문화나 국가간의 관계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이상이라면

55) W. LaFeber, *The Clash: U.S.-Japanese Relations throughout History*, W. W. Norton and Company, 1997을 참조할 것.

56) M. Mochizuki and M. O'Hanlon, "A Liberal Vision for the US-Japan Alliance," *Survival*, 40, 2, 1998을 볼 것.

57) 필자와의 개인적 대담에서 웨스터필드(Westerfield)는 미국은 사실상 중국과 일본 모두와 잘 지내려 하지만 두 나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나라를 파트너로 정하게 되며, 그럴 경우 미국이 설정하는 규범과 규칙에 좀 더 잘 따르는 일본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웨스터필드 교수와의 대담, 1998. 7, New Haven. 이는 중일관계가 미중관계나 미일관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 이리에는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의 배타적이지 않은 지역 공동체 관념과 중국의 덜 교조적인 민족의식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A. Iriye, *China and Japan in the Global Setting*,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Epilogue를 볼 것.

미국인들은 자신의 환상을 우리의 국경 너머로 투사하려는宿命적인 경향을 자제하고, 미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희망하는 변화의 (타국인들의 열망과 조건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정의되는) 한계를 인식해야만 한다.”<sup>58)</sup>

미중관계에 대한 고찰이 일방적인 관념정치(idealpolitik)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면 미일관계에 대한 검토는 차선으로서의 동아시아에서 현실정치(realpolitik)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존적인 관념과 상호소통적인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에 대한 모색이 계속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sup>59)</sup> 하지만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제관계에 있어 주체의 권력 확대의 추구와 패권적 구조의 제약 문제는 난치병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구성주의적 해법의 성패 여부는 관념적인 기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제와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58) Hunt, 1983, p. 313. 케난도 최근의 대담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만 하는 일은 세계의 지도력을 위한 미국의 가능성에 부여하는 우리들의 꿈과 열망의 크기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The Washington Post*, 1999. 8. 3.

59) 이리예가 말하는 문화적 상호의존이나 콕스(Cox)가 강조하는 문명간의 초간주관성(supra-intersubjectivity)의 필요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A. Iriye,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World Order*,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과 R. Cox, “Multilateralism and World Ord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8, 1992를 참조할 것.